동아일보 - 1934. 05. 14/ 4면/ 1단

思想의 俗惡化에 抗하야 唯物 辨證法
[제3회 上中下]

黃郁

어떤事物의 辨證法的 發展에 잇어서 「테-제」에서 「안티테-제」가 생겨나고, 이 前「테-제」가 다시「신테-제」로 綜合되는데는 반듯이 그 事物의 一定한 發展과 正反□「테-제」사이에 一定한 對立과 抗爭이 잇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陳述하엿고, 또 어떤 한 가지의 理論-唯物論이면 唯物論이 생겨나고 發展되고 死滅하고하는데는 반듯이 一定한 社會的 歷史的 經濟的 基礎가 잇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하엿다. 그리고 또 現在 唯心論的 思想이 잠간 머리를 드는 듯한 것은 歷史의

進行을 뒤로 물리랴는 全體資本家와 밀거기땀으는 사람의 □□(?)과□□에서 생겨나는 反撥이라는것도 前述하엿다. 이것으로써 唯心論時代來-라는 幻想에對한 현실指摘은足하다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 一部思想家는 말할 것이다.-「비록 지금은 아직 唯物論의 「안티테-제」로서의 唯心論이 充分히 展開되지 않엇다고, 假定하드라도 언젠가 한번은 그것이 完全히 展開될날이 올 것이 아닌가. 辨證法의 가르치는 대로 現在의 唯物論도 반듯이 그 「안티테-제」를 가질 것이요. 그것은 반듯이 唯心論, 또는 唯心論的인것이리라고,

未來는 보지 못하고 過去만 보는 사람, 또는 未來를 볼 때에도 항상 過去만 보듯이 하는 사람들은 事態를 正確히 보지 못한다. 過去에서 지금까지에 唯物論과 唯心論은 서로 서로의「안티테-제」가 되면서 人類의 思想을 進展시키며 人類의 文化生活을 보다 豊富하게하여 온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곧 現在의 唯心論도 또한 반듯이 그「안티테-제」로 唯心論을 가지리라고

斷言할 수는 없는 것이다.「진테-제」는 決코「테-제」의 反復이 아니어

서 맑스의 辨證法은 決코「헤-라콜리토스」의 그것의 反復이 아니며 現在의 唯物論은 十八世紀의 그것의 反復이 아니므로써 이다.

人類의 歷史가 進展됨에 닿아 人類歷史의 運行者-人類社會의 支配者가 漸漸 더 唯物論的인것은 西洋의 中世와 現代를 비겨보아 明白히 알 수 잇는 것이고, 十八世紀의 佛國新興階級의 唯物論이 지금의 新興階級에 依하야 얼마나 더 □底하게 되엇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頑固한 學者라도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에는 어떤 新興階級이 일어날 때는 반듯이 어떤 形態엔가가의 唯物論을 自己들의 哲學을 삼고, 낡은 支配階級의 勢力이 커짐에 딿아 漸漸□狹한 唯心論으로 기울어졋다는 것도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잇어 서는 純然한 唯物論者만이 支配者가 되엇든 일이 없엇으나, 그것은 지금까지 第一 下層인 絶對多數의 사람이 支配者가 된 일이 없엇기 때문이라 하겟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支配者들은 한번은 唯心論者가 될

可能性 乃至 必然性을 가지고 잇엇다.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支配者들이 반듯이 어떤 形態엔가의 財産을 私有하엿는것과 같은 事實이니, 이 두 가지 事實-唯心論者가될 可能性必然性을 가진 것과 私有財産을 가젓다는-이 두 가지 事實사이에는 一定한, 必然的인 聯係를 가지고 왓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中略)

그러므로 現在의 새로운 唯物論은 가장 完全한 唯物論인 同時에 또한 가장 ××한 哲學이요. 다시는 唯心論에로 기울어지지 않을 哲學이다.「그러면 그것은 將來에는 어떠케 될 것인가? 그것은 그 發展에 잇어서「안티테-제」를 가지지 않을 것이란 말인가? 그것은 辨證法을 自手로 廢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異論이 생길 것이나, 만일 將來의 社會의 經濟××이 지금의 그것과 全然別個의 것이라 하든 것을 안다면 問題는 곧 解決되는 것이 아닐까? 勿論現在의 唯物論도 장차 그 發展過程에 잇어서 그「안티테-제」를 가질 것이나, 決코

從來의 것과 같은 唯心論이 아니리라는 것은 알기에 힘드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未來의 社會가 階級抗爭以外의 方法으로 發展하리라 함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것이다. 그러면 이 앞으로 唯物論은 무엇을「안티테-제」로 하고 發展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될것이나, 이것은 아직 資本主義 세상에 살고 잇는 우리로 서는 豫言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그것이 그「안티테-제」르 낳기에 充分하도록 發展된 後에라야 알 수 잇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잇는 것은「안티테-제」는 반듯이 現在의 唯物論을 基礎로한, 그러나 그것에 對立되는 것이리라 하는 것뿐이다. 이것으로써 나는 辨證法과 唯物論

에대한 여러 가지 俗化惡化된 說明乃至應用에 抗辯한다. 이런 俗된 說明乃至應用은 인제 시작된 것이 아니나, 그것이 近來多少 새로운 意圖下에서 反復됨은 前述한바와 같다.(끝)